

3. 한국인의 남아선호 인식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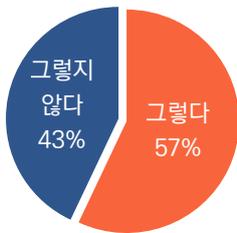


국민 절반 이상(57%), ‘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!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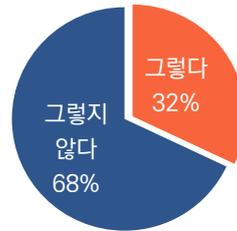
- 우리 국민의 남아/여아 선호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? 지난 6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, 우리 국민의 57%는 ‘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’고 응답한 반면, ‘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’에는 32%로 응답해 25%p 차이를 보였다.
-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통적 ‘남아 선호’ 현상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주류 인식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.
- 1990년 출생 성비가 117(여아 100명 당 남아 수)에서 2020년에는 105로 크게 낮아졌는데,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남아 선호 인식이 이처럼 빠르게 사라진 국가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의 특이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남아/여아 선호에 대한 인식

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



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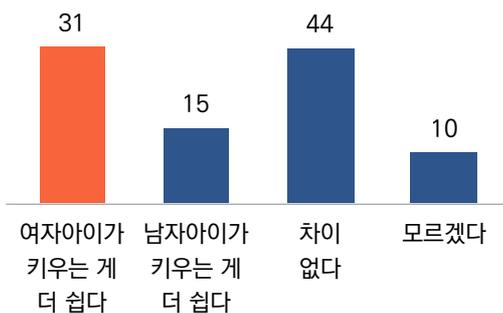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사회지표: 자녀에 대한 인식-파트2', 2021.6.30.(전국 만 18세 이상, 1,000명, 웹조사, 2021.6.4-7)

**4점 척도로 '그렇다'는 '매우+어느정도 그렇다', '그렇지 않다'는 '전혀+별로 그렇지 않다' 수치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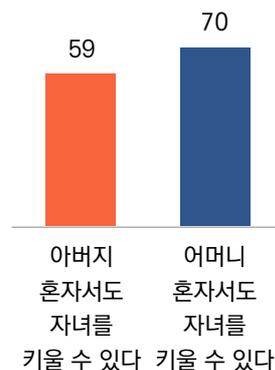
● ‘여자아이를 키우는 게 더 쉽다’ 31% > ‘남자아이를 키우는 게 더 쉽다’ 15%

-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 양육하는 데 어느 성이 더 쉬울까? 우리 국민의 44%는 차이 없다고 응답했는데, 주목할 점은 ‘여자아이’ 31%, ‘남자 아이’ 15%로 여아를 키우는 데 더 쉽다는 응답이 남아보다 16%p가 더 높았다.
- 부모 각각에 대해 자녀 양육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, ‘아버지 혼자서도 키울 수 있다’는 응답이 59%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,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54%, 여자 63%로 남자 응답자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남녀 자녀 양육 인식 (%)



[그림] 부모별 양육 가능(‘그렇다’ 응답률)**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사회지표: 자녀에 대한 인식-파트2', 2021.6.30.(전국 만 18세 이상, 1,000명, 웹조사, 2021.6.4-7)

**4점 척도 질문으로 '매우+약간' 그렇다 응답률임